

재택근로와 가족자원경영학의 과제

Home-Based Work and the Tasks of Family Resource Management

한국방송대학교 가정학과
교수 김외숙

Dept. of Home Economics, Korea National Open University
Prof. : Oi-Sook Kim

〈목 차〉

- | | |
|-------------------------|-----------------|
| I. 머리말 | IV. 가족자원경영학의 과제 |
| II. 관련용어의 정의 및 재택근로의 유형 | V. 맺는말 |
| III. 미국 가정학에서의 재택근로 연구 | 참고문헌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concept of home-based work, introduce the activities of American home economists on home-based work and propose the tasks of family resource management for home-based work.

Home-based work is defined as the work which generates income at home and classified 3 types: home-based business, employed home-based work and homework.

The activities of American scholars are reviewed focusing on the Cooperative Regional Research Project, NE-167, entitled "At-Home Income Generation: Impact on Management, Productivity and Stability in Rural/Urban Families" and the participants of the project.

Finally the tasks of family resource management are pursued in terms of research, education and service.

I. 머리말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변화할 때 특징적인 변화 중의 하나는 가정생활과 일의 분리 또는 가정과

일터의 분리이었다. 그후 정보화 사회로의 진행과 함께 가정과 일터가 다시 통합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역사적으로 본다면 농경사회 뿐만 아니라 산업사회에서도 가정에서의 소득취득 활동인 재택근로

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면서 유지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다만 198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이는 전자본주의적 노동방식 또는 자본주의적 생산관계의 외부에 위치한 주변적 노동으로서 자본주의의 발달과 함께 점차 사라질 노동의 유형으로 인식되어 왔는데, 80년대 이후 재택근로가 오히려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학문적·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게 된 것이다. 오늘날 재택근로는 컴퓨터와 통신기술의 발달과 함께 노동의 유연성 확대와 사무실 관리 비용의 감소, 가사와 일의 공유 가능성 증대 등과 같은 이점을 가짐으로써 전세계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노동환경에 능동적으로 적응하는 취업의 한 형태로서 부상하고 있다. 특히 IMF 체제로 칭해지는 우리사회에서는 기업의 임금절약을 위한 전략에서 뿐 아니라 실업자, 기혼여성 등이 자신의 주거지를 활용하여 소득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재택근로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재택근로자 가정에서는 가정이라는 동일한 공간에서 소득을 얻는 일과 가족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가정생활이 함께 이루어지므로 이 둘 사이의 상호관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이냐의 문제가 일과 가정생활이 시간적·공간적으로 분리된 경우보다 더욱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게 된다. 뿐만 아니라 노동장소의 변화는 노동자의 생활과 함께 그 가족의 생활에도 다양한 측면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일과 가정생활이 조화되고 일에서의 생산성뿐만 아니라 가족원의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재택근로의 증가 추세에 맞추어 최근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재택근로에 대한 연구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제까지는 주로 노동의 측면이나 기술적 측면이 다루어진 경향을 볼 수 있다. 가족자원경영학에서는 1997년 이후 6편의 연구가 보고되어 있을 뿐인데 이제까지의 연구들은 재택근로라는 새로운 현상을 소개하거나(문숙재·김은희, 1997a; 1997b), 가정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한 점(박명희·박미혜, 1997; 문숙재 외, 1998b), 미국의 자료를 분석한 점(문숙재 외, 1998a; 김효정·매리윈터, 1998) 등을 특징으로 들 수 있다.

따라서 증가하고 있는 재택근무라는 현상에 대하여 가족자원경영학에서는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를 검토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보고, 우선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 관련 용어들을 정리해 보고, 선진외국의 가족자원경영학자들이 재택근로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 미국의 경우를 살펴본 후, 연구·교육·봉사의 측면에서 가족자원경영학의 과제를 제안하기로 한다.

II. 관련용어의 정의 및 재택근로의 유형

1. 재택근로의 정의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소득취득 활동을 의미하는 용어로는 재택근로, 재택노동, 원격근무, 재택근무, 안방근무, 재택기업, 가족기업, SOHO, 가내근로, 가내노동 등이 사용되고 있다. 이 분야의 연구가 상대적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영어권에 있어서도 다양한 용어, 즉 home-based work, outwork, piecework, cottage industry, flexiplace, homework, remote work, work-at-home, home telework(ing), home-based telecommuting 등이 사용되어 왔다. 각 용어가 의미하는 점은 다소 차이가 있고, 같은 용어에 대한 정의도 학자별로 차이가 있지만, 이러한 용어에서 공통적인 점은 가정으로부터 떨어진 노동장소가 아닌 가정내에서 또는 가정을 근거로 행해지는 유급의 노동을 일컫는다는 것이다.

먼저 직업지위와 관계없이 노동장소에 초점을 맞추어, 가정에서 또는 가정을 근거로 이루어지는 노동을 총칭하는 용어를 보면 영어로는 home-based work, home-based employment, homework 등이 주로 사용되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까지 재택근무가 주로 사용되어 왔다. 가정화 관련 학회지에 재택근무 연구를 최초로 발표한 박명희·박미혜(1997)는 재택근무를 “가정내에서 행하는 유급의 소득취득 활동”으로 정의하고, 재택근무자의 유형을 크게 양분하여 자영업자(자영재택근무자)와 피고용자(고용재택근무자)로 나누었다. 여성학자 조옥라(1997)도 회사에 고용된 컴퓨터 프로그래머와 도급제 수당을 받는 전

산업력적 모두를 재택근로자로 포함시키고 있다. 매스컴에서도 SOHO, Telecommuting을 모두 재택근무로 번역해서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재택근무를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소득취득 활동이라는 포괄적 의미로 보지 않고, 직장인이라는 신분을 가진 상태에서 일하는 장소가 가정인 경우로 한정하는 견해도 많다. “소호 비즈니스가 재택근무와 다른 점은 재택근무는 주로 회사에 적을 두고 집 안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형태인데 비해 소호 비즈니스는 자신만의 아이디어로 홀로 창업하는 것”이라는 정의(안길섭, 1998), 특수고용형태의 하나로 주거내취로형(住居内就勞型)을 들고 이에는 가내노동과 재택근무가 있다고 보는 견해(박석운), “재택근무자들은 자영업자가 아닌 피고용자로서, 피고용자가 속한 회사의 근무규정에 재택근무가 제도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고용자와 피고용자가 모두 이 제도를 충분히 인정하여 근무장소의 자율성이 보장되어 있어야 한다. 재택근무자는 하청에 의한 가내 수공업자나 자영업자와는 다르다”는 설명(조성혜, 1995)은 모두 재택근무를 자영업인 재택사업이나 가내근로와 구별하는 입장이다.

이상의 견해들을 종합할 때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소득취득 활동을 재택근무로 볼 수도 있으나 가정에서의 소득취득 활동을 총칭하는 용어로는 재택근로를, 그 중 고용된 경우는 재택근무를 사용하는 것이 용어를 보다 정교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고 본다. 이 경우 ‘근무’라는 용어가 ‘직장에 적을 두고’ 직무에 종사함이라는 의미를 갖는다는 언어고유의 뜻과도 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신기철·신용철, 1975).

그러면 재택근로란 무엇인가? 가정학 논문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인용되는 정의는 Pratt와 Christensen의 정의이다. Pratt(1987)은 재택근로(home-based work)를 “가정내에서 또는 가정을 근거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노동”으로, Christensen(1988a)은 재택근로를 칭하는 용어로 home-based work과 home-work을 같이 사용하면서 이를 “근로자의 고용지위와 관계없이 가정내에서 행해지는 특정 유형의 노동이다. 그것은 확실하게 가정내에서 행해지는 것과 가

정밖이지만 가정을 근거로 행해지는 것 모두를 포함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한편 Horvath(1986)와 같은 학자는 재택근로자를 가정에서 그들의 주요 업무를 적어도 일주일에 8시간 이상 노동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기도 하고, Kraut(1988)은 재택근로자를 구별하는데 중요한 네가지 차원으로 1) 가정에서 일하는데 소비하는 시간양, 2) 그 일이 1차적인 직업의 일부로서 행해지느냐의 여부, 3) 그 일이 가정에서 또는 가정을 근거로 행해지느냐의 여부, 4) 그 노동자가 일에 대한 임금을 받는 지 가족기업을 위한 일을 하는지의 여부를 제안하기도 한다. 그러나 Stafford 등(1992)은 가정에서의 일이 일차적인지 여부는 불문하고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종류의 유급활동을 재택근로에 포함시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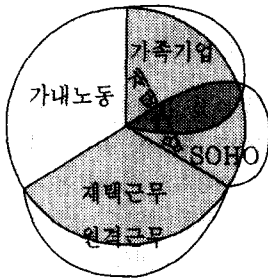
2. 재택근로의 유형

다양한 명칭으로 표현되고 있는 가정내에서 이루어지는 소득취득 활동을 좀 더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대안들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가정내에서 이루어지는 노동의 유형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재택근로의 유형에 대해서도 다양한 견해들이 있는데, 자영업과 고용으로 양분하는 방법이 다수 보고되어 왔다(박명희·박미혜, 1997; 문숙재·김은희, 1997a). 그런데 가내노동의 경우는 그 성격이 복잡하여 자영업이나 고용의 어느 한편에 포함시키기가 어려운 점이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일의 성격에 따라 그 유형을 분류한 학자로서 Christensen(1989)을 들 수 있다. 그녀는 재택근로자(home-based worker)를 재택기업주, 재택피용자, 독립계약자로 나누고 있다. 첫째, 재택기업주(home-based business owner)는 가정에서 일하는 독립적인 자영업자로 조세를 납부하는 층이다. 이 층은 비교적 고소득자로 안정적인 취업을 지속한다. 둘째, 재택피용자(home-based employee)는 기업에 고용되어 있으며 때에 따라 사무실과 집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말한다. 최근 등장한 ‘재택근무자’가 이것으로, 원칙적으로 피용자에게 주어지는 고용상의 모든 권리를 향유할 수 있

다. 셋째, 독립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는 형식적으로는 자영업자이지만 실제로는 피용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다수의 여성 가내노동자가 여기에 포함된다(신경아, 1994).

이러한 Christensen의 분류를 기초로 하면서 우리나라의 선행연구 및 노동실태 등을 종합할 때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소득취득 활동인 재택근로는 그 유형을 재택기업, 재택근로, 가내노동으로 나눌 수 있다고 본다. 영어명칭들과 대치시켜 본다면 home-based works, home-based employment는 재택근로를, home-based business, family business, SOHO는 재택기업을, home-based employee, home-based telecommuting은 재택근무를, homework은 가내근로 또는 재택근로의 의미를 갖는다고 보아 무리가 없다고 볼 수 있다(그림 1 참조).



〈그림 1〉 재택근로의 유형과 유사 개념과의 관계

다음으로 재택근로와 관련된 주요 용어들을 간단히 살펴보기로 한다.

재택기업 또는 재택사업(home-based business)이란 가정내에서 또는 가정을 근거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다(Pratt, 1987). 이것과 유사한 용어로 가족기업(family business)이 있는데, 학자에 따라 그 개념규정이 다양하나 '적어도 기업의 51% 이상을 단일가족이 소유하고 있고, 최소한 한사람 이상의 가족구성원이 사업의 운영 및 관리활동에 반드시 참여하고 있으며, 소유권 및 리더십이 다음 세대의 가족구성원에게 계승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이라는 정의가 자주 인용된다. 따라서 가족기업은 개념규정에 있어 가족이라는 구성원이 중요하고 노동장소는 무관하나,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가

족기업이 가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동시에 재택기업이 된다. 따라서 재택기업은 가족기업의 하위영역에 속하는 특수한 하나의 형태라고 할 수 있다.

노동장소를 나타내는 단어에서 생성된 용어인 SOHO는 영어의 'Small Office, Home Office'에서 머릿글자를 따 만든 합성어로서 '작은 사무실 또는 가정 사무실'이라는 의미로 개인이 자기 집을 사업장으로 하는 소규모사업체(독립사업)를 일컫는다. 90년대에 들면서 컴퓨터라는 정보통신기와 인터넷이라는 네트워크의 결합에 의해 업무환경이 크게 바뀌면서 새로운 형태의 업무조직인 소호들이 생겨나기 시작하였다(권호영, 1997).

재택근무를 '직장에 적응을 못하고 가정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볼 때, 이와 유사한 용어로 텔레커뮤팅이 있다. 이는 업무와 관련된 일 또는 근무를 사무실이 아닌 곳에서 수행하여 일한 결과를 원격통신을 통해 회사 또는 필요한 장소에 보냄으로써 사람들이 원하는 장소에서 일하는 형태를 말한다. 이때 일하는 장소는 텔레커뮤팅센터(위성근무센터/근린근무센터)와 자택이 될 수 있다(조성혜, 1995). 따라서 엄격하게 본다면 재택근무는 텔레커뮤팅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고, 이러한 점에서 텔레커뮤팅을 원격근무라고 번역하기도 한다.

가내근로란 일반적으로 근로자 자신이 선택한 작업장소에서 직접 또는 중개인을 통하여 원자재나 도구를 공급받아 물품을 제조·가공하여 보수를 받는 것을 말한다(김소영·문무기, 1997). 가내근로자는 개수계 임금을 받으며 기업주나 하청업자에게 종속되어 있다는 점에서 임금노동자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은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피용자에게 부여되는 보호를 받지 못한다. 따라서 피용인과 독립계약자 범주 사이의 경계는 매우 모호하며 이들은 형식적으로는 독립계약자로 존재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피용자의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다(신경아, 1994). Allen과 Wolkowitz(1987)도 전문적 자영업과 프리랜스 등은 가정에서 직무를 수행하지만 가내노동과 구별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가내노동이 저임금, 노동의 불안정성이라는 특

징을 가진 것과는 달리 전자의 경우 직무나 계약조건에 따라 임금 및 고용조건에서 상당한 다양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Ⅲ. 미국 가정학에서의 재택근로 연구

재택근로에 관한 가정학분야에서의 최초의 대규모 연구로는 1987년부터 1992년까지 이루어진 Cooperative Regional Research Project, NE-167, "At-Home Income Generation: Impact on Management, Productivity, and Stability in Rural/Urban Families"를 들 수 있다. 공동연구자들은 미국 9개주의 가정학 전공 교수 및 익스텐션 전문가이었고, 연구비는 농무성의 Cooperative States Research Service, 9개 대학의 Experiment Stations, 3개 대학으로부터 받았다. 공동연구자는 다음과 같다.

이들이 연구를 시작할 때의 주된 관심주제는 1) 재택근로자와 그들의 활동의 특성, 2) 재택근로와 가족의 관리, 3) 가족의 기능과 동태, 4) 재택근로 활동들을 위한 지역사회 여건이라는 4개 영역이었다

(Winter, 1992)

이 프로젝트와 관련된 많은 연구가 Family Business Review에 발표되어 오고 있고, 1992년에는 "At-Home Income Generation"이라는 제목으로 Journal of Family and Economic Issues의 특별주제판이 발간되기도 하였다(JFEI Vol.13-2, Part One; Vol.13-3, Part Two). 1996년에는 이 공동연구에 기초를 둔 단행본 "Home-Based Employment and Family Life"(Heck, Owen, & Rowe, 1996)가 출판되었다. 또한 공동연구에 참여했던 교수들이 소속되어 있는 대학에서는 현재 '가족기업' 교과과정이 개설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한편 공동연구를 주도해 온 Cornell 대학의 Ramona Heck 교수는 Journal of Family and Economics Issues의 재택근로를 다룬 특별주제판에서 Guest Editor를 담당했고, 1994년 설립된 The International Family Business Program Association (IFBPA)의 연구이사(Research chain)이기도 하다. 1996년에는 코넬대학 가정대학내에 Family Business Research Institute (FBRI)를 설립하기도 하였다.

〈표 1〉 NE-167 프로젝트 참가자

참가자	소속
Diane Masuo	University of Hawaii
Carolyn Ann Dixon	〃
Mary Winter	Iowa State University
Rosemary Walker	Michigan State University
Alma J. Owen	Lincoln University(Missouri)
Ramona K. Z. Heck	Cornell University
Nancy C. Saltford*(David L. Brown)*	〃
Kathryn Stafford	Ohio State University
Joan Gritzmacher	〃
Anne R. Coveney	〃
Marilyn M. Furry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Barbara R. Rowe	Utah State University
Marion Bentley	〃
Suzanne Loker	University of Vermont
Elizabeth Scannell	〃

* : 익스텐션 전문가로서 참여하였으며, 프로젝트 진행 중 변경되었음.

미국대학에는 가족기업과 관련된 연구소가 수없이 많은데, FBRI는 기업측면보다는 가족측면의 문제에 초점을 두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가족기업연구를 위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최초의 기관이다. 이 연구소는 가정대학의 Bronfenbrenner Life Course Center(BLCC)의 부속기구의 하나로서, 농과대학과 경영대학원의 공동 프로그램인 Entrepreneurship and Personal Enterprise(EPE)와 공식적인 연계를 맺고 있다. 연구소의 구성원으로서 가정대학 교수가 가장 많지만 호텔경영대, 농대, 산업·노동관계대학 교수들도 참여하고 있다. 이 연구소의 임무는 가족기업을 경영하고 있는 가족과 그 기업을 강화하는 것으로, 주대상은 연매출액이 \$1-\$1억의 소기업이다.

이 연구소에서는 연구, 교육, 봉사를 겸하고 있는데, 초점은 연구에 있다. 연구활동은 가족기업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들로서 가족관점에서는 가족의 구조, 개인 및 가족의 역동성, 커뮤니케이션 양식, 재무환경(세금 포함), 의사결정과정, 관리전략 등을, 기업관점에서는 기업의 설립·확대·전문화, 전략적 관리, 상속문제 등을 다루고 있다. 교육과 봉사는 학술회의 개최, 전자커뮤니케이션과 같은 혁신적 방법을 활용한 정보제공을 통해서 이루어지며, 인터넷에 홈페이지를 두고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http://nmq.com/fambiznc/cntprov/orgs/cornell/>). 이 연구소에서는 앞으로 REAL Library(Research Electronically Accessible for Learning Library)도 구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제까지 미국의 NE-167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가족자원경영학자들이 재택근로와 관련하여 어떠한 활동들을 해오고 있는지 개괄적으로 소개하였다. 물론 우리나라는 미국과 사회·경제·문화적 환경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미국의 예를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를 통하여 우리들이 시사받을 수 있는 점도 많으며, 이를 기초로 우리 사회의 특수성을 함께 감안한다면 학술적인 면에서 압축성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시사받을 수 있는 몇 가지 대표적인 점을 들어보면, 사회적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처한 과제의 선정,

프로젝트를 위한 장기간의 치밀한 준비, 공동연구를 통한 연구의 효율성, 제도 출판·연구소 개소·교과과정 개설 등과 같은 연구결과의 생산적·연계적 활용, 가정학의 정체성 활용, 관련프로그램의 확대와 타학문분야와의 학제적 협조 등이다.

IV. 가족자원경영학의 과제

1. 연구

선행연구의 결과를 정리하기 보다 “왜 재택근로의 연구가 가족자원경영학회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가?”라는 문제의식을 기초로 가족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통한 가족원의 복지증진이라는 가족자원경영학의 본질 및 현대 사회의 요구와 관련하여 어떤 관점에서, 어떤 주제를, 어떻게 연구할 것인가 생각해 보기로 한다.

1) 연구의 관점

첫째, 재택근로는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연구할 수 있는 분야이다. 이처럼 학제적 접근이 가능하고 또한 유용한 분야에서는 특히 학문의 정체성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기초로 비교우위의 관점에서 연구를 수행할 필요성이 크다. 교육에서는 다른 학문의 연구 결과를 이용해서 충분히 잘할 수 있지만, 연구에 있어서는 독자적인 영역이 있어야 학제적 연구에서 공헌할 수 있는 부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재택근로에 관한 연구가 타전공자들에 의해 주로 근로의 측면에 주어져왔다고 본다면, 가족자원경영학자들은 가족과 가정의 측면, 그리고 근로와 가족/가정과 상호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인간생태학적으로 접근함으로써 가족자원경영학의 독자성을 살릴 필요가 있겠다.

둘째, 타학문과의 차별화가 필요한 것과 마찬가지로 선진 외국과의 차별화도 필요하다고 본다. 연구가 앞서 있는 선진국의 선행연구에서 배울 수 있는 점이 많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사회의 특수성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이 기초될 때 학문사회에서 우리들이

선진국의 추종자만이 아닌 동반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경제적 후진성이나 문화적 차이를 고려한 재택근로와 재택근로자의 특성 비교, 관리전략의 차이, 재택근로자의 보호문제 등은 선진국의 선행연구에 기초하여 연구대상만 우리사회로 바꾼다고 연구될 수 없는 문제이다.

2) 연구주제

구체적으로 어떤 주제들을 연구할 것인가? 포괄적 의미가 아닌 예시적 의미로 몇가지 범위의 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재택근로의 개념규정, 본질과 특성, 장단점, 연구의 의의, 전망 등에 관한 질적 연구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재택근로라는 일의 특성과 그 일을 하는 근로자의 특성을 밝히는 문제가 다른 조사연구에 앞서 필요하다고 본다.

이제까지의 선행연구들을 보면, 재택근로에 대한 개념규정, 연구에 포함된 근로자의 유형에 따라 재택근로자의 특성이 상당히 다르게 보고되고 있다. 명확한 개념규정에 근거하고 대표성있는 표집을 통한 조사연구나 심층적 사례연구로 재택근로 또는 재택근로자를 명확하게 이해하는 일이 중요하다.

셋째, 재택근로자의 행동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적 모델의 설정과 실증적 분석이 필요하다.

나라별, 기업주·재택근무자·가내노동자 등 노동지위별, 정보산업분야에서 단순수공예에 이르는 직종(일의 종류)별, 재택사업의 경우 규모나 피고용인과의 관계별, 노동지속 연수별, 가족구조나 가족주기별, 근로자의 성별 차이검증 등이 이러한 연구에서 다루어질 것이다.

넷째, 재택근로에서 야기되는 문제 및 해결책 모색이 실용적인 측면에서 중요하다.

재택근로에 대한 자녀의 영향 및 재택근로와 자녀양육문제, 노동시간의 문제와 시간관리, 공간문제, 소득과 재무관리, 피용인 고용이나 가족원의 참여문제, 서비스 사용문제, 세금 등 사회제도가 재택근로에 미치는 영향, 재택근로가 가정생활 및 사회생활에 미치는 영향, 부부간/세대간/동기간 갈등과 갈등 대책,

소유권 문제와 상속, 후계자 문제, 재택근로와 가족의 관리, 가족의 기능과 동태, 재택근로를 위한 지역사회의 여건 등이 실용적 측면의 연구주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3) 연구방법

첫째, 연구주제에 따라 질적, 양적 연구방법을 적절하게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개념규정이나 선진연구의 소개, 이론적 모델 설정, 연구과제 등에 대해서는 문헌자료를 통한 문헌연구가 적절할 것이고, 실태파악이나 실증적 검증을 위해서는 조사연구가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문제의 심층적 분석이나 관리전략의 개발을 위해서는 심층적인 사례연구가 유용할 수 있다.

둘째, 가족생활뿐만 아니라 가족과의 관련성이 큰 재택근로를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효율적인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한 시점에서의 횡단적 연구 외에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변화뿐 아니라 세대간 계승의 문제까지 연구하는 종단적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연구주제에 따라 단독 또는 공동으로 연구할 수 있겠지만, 재택근로에 대한 명확하고 포괄적인 이해와 실천적인 방안의 제시를 위해서는 가족자원경영학 전공자뿐만 아니라 다른 전공의 가정학자들, 나아가 가정학 외의 다른 전공자, 더 나아가 학자뿐 아니라 경영자, 회계사, 변호사, 가족상담사, 재무설계사 등 실무자와도 학제적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유효하고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다.

2. 교육

우리나라에서도 어느 정도 연구가 축적되면 대학의 정규교과목으로 재택근로를 교육할 필요가 있다. 정규교과로서의 교육은 가족자원경영학 전공자에게 취업과 직결된 내용을 제공할 수 있으므로 가족자원경영학의 범위를 확대하고, 실천성을 예증하는 장점을 갖는다.

대학에서 정규 교과과정으로 재택근로를 다룰 경우 첫째, 교육대상에 따라 교과와 주요 주제를 특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일반적으로 말한다면 연구

에 있어서는 재택근로의 모든 유형이 나름대로 중요성을 갖지만, 고등교육의 대상으로서는 가내근로보다 첨단 기술발달 및 최신의 경제·사회적 구조의 변화에 부응하는 새로운 재택근무나 재택기업, 또는 가족기업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각 대학 학생의 자질이나 요구, 지역사회의 특성에 따라 대학별 초점이 다를 수도 있을 것이다. 미국의 경우, NE-167 프로젝트를 시작할 당시의 연구주제는 '재택근로'이었으나 교과목으로서의 '가족기업'으로 변경된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어떠한 주제에 초점을 맞추든 교육내용에 있어서는 재택근로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출 수 있는 실무적인 면을 많이 포함시키고, 교육방법에 있어서는 이론강의와 함께 다양한 실무실습을 겸하도록 할 필요가 있겠다.

3. 봉사

가족자원경영학자들이 재택근로에 대한 연구를 심화하게 되면 다른 어떤 주제보다 사회에 봉사할 활동이 많다고 본다. "어떻게 재택근무할 직종을 구할 것인가?" "어떤 직종이 내게 맞는가?" "어떻게 창업할 것인가?" "가정생활과 일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좀 더 효율적으로 가사노동과 직업노동을 수행하는 방법은?" 등과 같은 문제에 대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필요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

재택근로의 유형은 다양하고, 직종도 다양하기 때문에 봉사활동 프로그램도 대상의 특성에 따라 세분화, 구체화되어야 효과적일 것이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상담(대면상담, 전화상담, 집단상담 등), 교육이나 연수, 소책자나 인터넷을 통한 정보제공 등이 있을 수 있다. 현재 국내외적으로 이 주제와 관련된 Web 사이트는 상당히 많으므로 기존의 사이트와 연계하는 일도 필요할 것이다. Web Resources Related to Home-Based Business (<http://www.hec.ohio-state.edu/cts/osue/bus.htm>)에는 가족기업에 관한 대표적인 사이트가 소개되어 있고, 인터넷에서의 유일한 가족기업 search engine인 Netmarquee(Family Business Netcenter)(NMQ.com)에는 1998년 4월 30일 현재 27

개 대학의 가족기업 관련 연구소 또는 프로그램이 올라와 있다. KoreaSOHO 추천 사이트(<http://www.koreasoho.co.kr/main/siteindx.htm>)에는 SOHO에 관한 국내의 사이트가 소개되고 있다.

V. 맺는말

현재 가정학, 특히 가족자원경영학이 대학사회에서 큰 시련을 맞고 있고, 우리사회 전체도 IMF 체제 속에서 위기라는 단어가 일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이 위기를 기회로 활용해서 보다 질 높은 연구결과를 내고 학생들에게 유익한 교육을 하고,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봉사를 제공할 수 있을 때 가족자원경영학은 그 존재의의를 분명히 하면서 학문사회에서, 또한 실용적 전문분야로서 우뚝 설 수 있을 것이다.

가족자원경영학자들이 이러한 활동을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기 위해서는 학회 차원에서 효율적인 연구환경을 지원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또한 학회가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회를 이용하여 연구자들끼리 네트워크를 구축하거나 소연구회 같은 조직을 구성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조직을 통하여 주제별로, 또는 지역별로 공동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연구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연구결과도 보다 생산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나 교육을 위한 데이터 베이스의 구축과 같은 일은 집단적으로 상부상조를 통하여 가장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본다.

학회중심의 조직은 나아가 재택근로에 관한 새로운 교과과정을 개발하기 위하여 강의계획서 작성, 사례개발, 과제선정 등 구체적인 준비를 공동으로 할 수 있을 것이고, 타학문분야의 학자 및 실무자까지 포함하는 조직과의 연계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재택근로의 문제는 실물경제에 직접 관련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학술지원기관뿐 아니라 금융기관, 정보산업기관, 재정기관 등의 관심이 높을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적 요구에 적절하게 부응해 나간다면 연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연구비 지원을 유도하기 위해서도 조직화된 힘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정보화 사회와 함께 변화하는 노동환경에 대처하는 노동형태의 하나로서 재택근로는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가족자원의 합리적 사용을 통한 가족복지의 증진이라는 목적을 갖는 가족자원경영학은 연구·교육·봉사의 모든 측면에서 이 주제를 적극 수용하여 학문영역을 확충함과 동시에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여야 하겠다.

【참 고 문 헌】

1. 문헌
- 1) 김소영·문무기 (1997). 가내근로의 실태와 제도적 보호에 관한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 2) 김정한 (1998. 5.). 재택근로를 중심으로 살펴본 근로정보화 현황. 정보화로 가는 길, 26-29.
- 3) 김효정·매리 윈터(1998). 성별이 직업과 시장노동 장소의 선택 및 소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미국의 직장 근무자와 재택근무자의 비교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6(7), 123-141.
- 4) 김훈식(1996.7.). (제83차 ILO총회 결산과 전망) 가내근로에 관한 토의. 경영계, 한국경영자총협회.
- 5) 문숙재·김은희 (1997a). 가족 자원 활용을 위한 재택사업(Home-Based Business)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창간호.
- 6) 문숙재·김은희 (1997b). 가족기업(Family Business)경영에 관한 이론적 논의. 대한가정학회지, 35(6), 317-334.
- 7) 문숙재·김은희·Heck, Ramona K. Z.(1998a). 재택근무 가정의 실태 및 개념적 모델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6(3), 207-224.
- 8) 문숙재·김은희·이석경·제민정(1998b). SOHO (Small Office Home Office)직이 가사노동 참여시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2(1), 151-165.
- 9) 박명희·박미혜(1997). 재택근무의 고찰과 가정경영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 15(3), 1-13.
- 10) 신경아(1994). 여성 가내 노동자의 현실과 보호. 여성연구 45, 한국여성개발원.
- 11) 신기철·신용철(1975). 새우리말 큰 사전. 서울: 삼성출판사.
- 12) 안길섭(1998. 4). 소호 비즈니스가 개인 창업시대 연다. 뉴미디어 저널.
- 13) 유장수(1986). 한국의 가내노동자에 관한 연구 - 대구지역의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서울대 석사 학위논문.
- 14) 이토토모하치로(伊藤友八郎) 지음, 광동수 편역 (1997). 연봉 1억! 지금은 SOHO시대. 서울: 씨앤씨미디어.
- 15) 조성혜(1995). 재택근무자(텔레커뮤터)의 시·공간 행태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 학위논문.
- 16) 조옥라(1998). 정보화 시대의 재택근무와 모성. 한국인류학의 성과와 전망(이광규교수 정년퇴임 기념논문집), 서울: 집문당.
- 17) 조 형(1985). 비공식부문 여성노동. 한국여성과 일. 서울: 이화여대 출판부.
- 18) 한국여성개발원(1989). 가내노동실태에 관한 연구.
- 19) 한국여성개발원(1986). 여성취업실태조사: 기혼 여성을 중심으로.
- 20) Aronoff, C.E., Astrachan, J.H. & Ward, J.L.(1996). *Family Business Sourcebook II*. Marietta: Business Owner Resources.
- 21) Beach, B.(1989). *Integrating work and family life: the home-working family*. 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 22) Boris, E. & Daniels, C.R.(1989). *Homework: Historical and contemporary perspectives on paid labor at home*.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 23) The bureau of national affairs, Inc(1986). *Work & family : a changing dynamic*. Washington, D. C.: BNA.
- 24) Christensen, K. E.(1988a). *The new era of home-based work*. Boulder: Westview press.
- 25) Christensen, K. E.(1988b). *Women and home-based work*. New York : Henry Holt and

- company.
- 26) Felstehausen, G & Schultz, J. B.(1991). *Work and family: educational implications*. Peoria: Macmillan/McGraw-Hill.
 - 27) Geerken, M. & Gove, W. R.(1983). *At home and at work: the family's allocation of labor*. Beverly Hills: SAGE publications.
 - 28) Heck R. K. Z., Winter, M., & Stafford, K.(1992). Managing work and family in home-based employment. *J. of Family and Economic Issues* 13(2). 187-212.
 - 29) Heck R. K. Z., Owen, A. J., & Rowe, B. R. (1995). *Home-based employment and family life*. New York: Greenwood Publishing Group.
 - 30) Ibrahim, A.B. & Ellis, W.H.(1994). *Family Business Management: Concepts and Practice*. Dubuque: Dubuque: Kendall/Hunt Publishing Co.
 - 31) Loker, S., & Scannell, E.(1992). Characteristics and practices of home-based workers. *J. of Family and Economic Issues* 13(2). 173-186.
 - 32) Owen, A. J. Rowe, B. R., & Gritzmacher, J. E. (1992). Building family functioning scales into the study of at-home income generation. *J. of Family and Economic Issues* 13(3). 299-314.
 - 33) Owen, A. J., Carsky, M. L., & Dolan, E. M. (1992). Home-based employment: Historical and current considerations. *J. of Family and Economic Issues* 13(2). 121-138.
 - 34) Rowe, B. R., & Bentley, M. T.(1992). The impact of the family on home-based work. *J. of Family and Economic Issues* 13(3). 279-298.
 - 35) Stafford, K., Winter, M., Duncan, K. A., & Genalo, M. A.(1992). Studying at-home income generation: Issues and methods. *J. of Family and Economic Issues* 13(2). 139-158.
 - 36) Voydanoff, P.(1987). *Work and Family Life*. Biverly Hills: SAGE publications.
 - 37) Winter, M., Puspitawati, H., Heck, R. K. Z., & Stafford, K.(1993). Time-management strategies used by households with home-based work. *J. of Family and Economic Issues* 14(1). 69-92.
- ## 2. WWW
- 1) 권호열(1997). “통신업종 재택근무 붐: SOHO시대” 강원일보, “권호열 교수의 정보세상” 칼럼모음 페이지. (<http://cc.kangwon.ac.kr/~hykwon/kwilbo/kwi197.html>)
 - 2) 박석운. “비정규직 학원강사의 실태와 법적, 제도적 대안-외근형 노무공급자의 보호방안에 대해”, 한국여성단체연합(www.women21.or.kr/html/laboo/la06.htm)
 - 3) Bellet, W., Dunn, B., Heck, R., Parady, P. Powell, J., & Upton, N.B. Family business as a field of study. (<http://nmq.com/fambiznc/cntprovs/orgs/Cornell/articles/real/ifbpa.htm>)
 - 4) Moen, P. A life course approach to the entrepreneurial family. Netmarquee. (<http://nmq.com/fambiznc/cntprovs/orgs/Cornell/articles/real/moen.htm>)
 - 5) Winter, W. & Morris, W. Family resource management and family business: Coming together in theory and research, Netmarquee. (<http://nmq.com/DataNMQ/traffic/search/sho.../contprov.dbm?ContProvCode=Cornell&ID=36>)